



투투  
투투

# 부산체육

June 2020 VOL. 04

## 사람과 사람

오롯이  
내 페이스대로,  
강심장은 나의 무기!

한국 사격판의 대형 유망주,  
부산광역시체육회 사격팀  
박대훈 선수



## 스포츠 톡

“팡! 팡! 리시브~  
토스~ 강 스파이크!”

2019년 슈퍼컵 우승팀  
연산배구클럽



## 부산체육의 발자취

남과 북이 하나 된  
평화의 축제,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 스포츠 전국 투어

“으라차차~”  
씨름의 희열,  
창원을 가다!



## 스포츠 뉴스

01

부산광역시체육회  
2020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02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교통공사 업무협약체결



03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코로나19 극복 희망캠페인  
릴레이’ 동참



## 이달의 이슈 - 프로 스포츠의 개막



## 스포츠 센터 info



사람과 사람



오롯이 내 페이스대로,  
강심장은 나의 무기!

한국 사격판의 대형 유망주,  
부산광역시체육회 사격팀 박대훈 선수

럭비선수였던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운동에 남다른 소질을 보인 부산광역시체육회 사격팀 박대훈 선수는 중학생 시절, 사격부 선생님이 총 한번 쏘 보라고 했던 게 '사격 인생'의 시초였다고 한다. 부산 북구 덕천동에서 태어난 박대훈 선수는 경남 창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사격을 접한다.

자신과의 싸움, 멘탈 스포츠 사격은 내 인생

지난 2018년 10월 12일 전북 일원에서 성대하게 막 오른 제99회 전국체육대회는 한국 사격의 차세대 스타 박대훈이 대회 3관왕에 오른다. 10월 13일 열린 남자 일반부 공기권총 50m에서 우승한 데 이어 14일에는 남자대학부 공기권총 10m 단체전과 개인전을 휩쓸며 대회 3일째 금메달 3개를 목에 건다. 그의 다음 목표는 2020년 도쿄올림픽 대회였다. 안타깝게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미뤄진 상태, 지금 상황이 답답하기만 한 박대훈 선수다.

“모든 운동이 그렇겠지만 특히 사격은 멘탈 스포츠예요. 시합 때 연습시간 15분가량을 주고 75분 내에 60발을 쏘야 해요. 다리도 아프고 집중을 해야 하니깐 눈도 피로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더 쉽사리 무너지게 되죠. 그렇게 한 번 흔들리면 다시 본래 페이스를 찾기 힘들어요. 훈련을 오래 하다 보면 75분을 어떻게 끌어가며 경기를 풀어갈지 감(感)이 잡혀요. 실수를 거치면서 제 단점을 보완하는 거죠.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본 건 99회 전국체육대회였어요. 사실 대회 일주일 전에 코를 다쳐서 경기를 포기하려 했는데 대회 3관왕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둬 부모님도 많이 기뻐하셨고 저 역시 동기부여가 컸고요. 2020년 도쿄올림픽대회만 바라보면서 훈련했는데 속상할 따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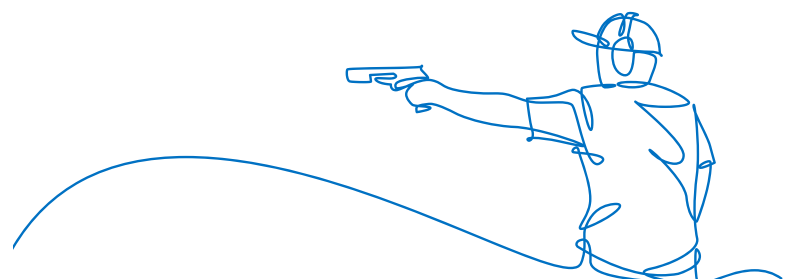


무대를 즐길 줄 아는 자신감, 사격선수로서 최강점

지난 2014년 10월, 제5회 세계대학생사격선수권대회에서 10m 권총 1위, 50m 권총 2위를 기록한 박대훈 선수는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3관왕에 오르며 차기 진종오 선수의 대를 이을 우수선수로 주목 받는다. 2015년 쿠웨이트에서 개최된 제13회 아시아 사격선수권대회에서 세계주니어 신기록을 수립하며 2관왕에 올랐다. 2018년 8월, 경남 창원에서 개최된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는 50m 권총 종목 국가대표로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격은 박 선수가 말했다시피 멘탈이 중요한 스포츠인데 박 선수가 겉보기에는 수줍음도 많고 내성적일 거 같은데 경기장에 가서 시합에 들어가면 그 순간을 제대로 즐기는 편이에요. 자신에게 쏠린 관심이 클수록 플러스알파 에너지가 나오달까요? 운동선수로서는 정말 큰 장점이지요. 대개 경기를 하면서 긴장해서 기량을 백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 선수는 경기장에 들어서면 관중을 한번 짹 훑어보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요. 그 표정이 마치 ‘여러분, 제가 우승할 테니 꼭바로 뜨고 잘 지켜보세요!’ 하는 거 같다니깐요. 멘탈 부분에서 다른 사격선수와는 다른 탁월함이 있는 거죠.”

사격선수로 활약하다가 코치 생활을 오래한 권영희 감독이 동명대학교에 온 건 2016년, 권 감독이 박 선수를 주목한 건 그 남다른 여유, 집중력, 쇼맨십 등이었다. 다른 운동의 경우 체력적인 기량을 한껏 끌어올려 발산한다면 사격은 1시간 반가량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긴장과 불안 넘어서는 과정을 거친다. 매 경기 다른 선수의 기록은 의식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페이스대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탄탄한 심장의 뒷배는 역시 여한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자신감 때문이 아닐까. 그가 들려줄 다음 승전보가 기대된다.



스포츠 센터 info



스포츠센터 소개



SPORTS  
센터 INFO

북구국민체육센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모두 가능한 **스포츠 인프라!**

북구국민체육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우수공공체육시설 선정사업에서 2017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북구국민체육센터를 표방하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모두 가능한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고 북구국민체육센터는 2011년 10월 문을 열었다. 정직원 17명에 일반파트 36명이 머문 이곳은 지상 1층은 기계실과 주차장 2층은 안내데스크와 사무실 그리고 수영장 3층에는 헬스장과 클럽하우스 그리고 휴게실이 4층은 스튜디오실과 체육관이 있다.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을 유치, 운영을 통해 다종목 프로그램과 다수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스포츠클럽 소속 운동선수 육성으로 스포츠 선순환 기틀 마련과 수익 창출을 통해 독립채산제로 재정적 자립을 이루며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SPORTS  
센터 INFO

강서구국민체육센터



현실과 조건을 뛰어넘는 에너지, **경영 흑자로 돌려!**

주위를 둘러보면 주거지는 없고 공단이 많다. 그래서인지 낮 시간대 센터는 한적한 편, 직장인들이 이른 아침이나 퇴근 후 시간을 내어 센터를 이용하는 게 특징이다. 주거 단지에 인접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다 셔틀버스도 운행하지 않는다는 단점에도 강서구국민체육센터를 찾는 회원은 하루 2,000명 정도 된다. 2013년 문을 연 이후 내내 적자 운영에 그쳤던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부산시체육회가 수탁 운영 후 2019년 221명의 회원이 늘어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16명의 정직원과 시간강사 16명이 일하는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지리적 여건상 다른 센터와 다른 점이 많다. 60~70대 어르신들이 주 회원인 타 센터와는 달리 직장에 다니는 30~40대가 주 회원이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1층은 수영장과 로비, 2층에는 사무실과 스트레칭 공간, 세탁실, 북 카페와 회원들 쉼터가 자리했다. 3층은 배드민턴 등의 운동이 가능한 대체육관과 헬스장이 4층에는 GX룸이 있다.

SPORTS  
센터 INFO

영도국민체육센터



영도 지역민의 믿음직한 **건강 지킴이**

2009년 문을 연 영도국민체육센터는 영도어울림문화공원 안에 위치한 체육센터다.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이 함께 들어서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영도어울림문화공원 안에 있다 보니 이용자 수가 많은 편, 회원 수는 3,500명인데 하루 3,000명가량이 찾는다고 했다. 회원의 90%가 영도 주민, 지역민들의 건강 지킴이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상근직 22명, 파트 강사 36명이 근무하는 영도국민체육센터 1층은 수영장이 1~2층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체육 공간이 3층은 일반 사무실과 스크린골프장, 인도골프연습장이 있고 4층에는 식당과 매점이 자리했다. '영도' 지역의 특성상 노령화가 급속한 터라 전체 회원 수의 70%가 60~70대 어르신들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센터 문을 닫은 지 수개월, 그동안 7개의 레인이 있는 수영장에 딸린 남녀 샤워장과 헬스장 전체를 보수했다. 영도국민체육센터가 타 체육센터와 차별화되는 건 스퀘시장이 갖췄다는 점. 제일 붐비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12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헬스와 수영인데 수영 중에서도 아쿠아로빅이 제일 핫한 프로그램이다.

스포츠 톡



“팡! 팡! 리시브~  
토스~ 강 스파이크!”

2019년 슈퍼컵 우승팀 연산배구클럽

2007년 창단된 연산배구클럽, 남녀 혼성팀으로 회원은 총 56명에 이른다.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20~30대가 주축을 이룬다. 이른 아침부터 김해 연습장에 모인 이들은 생기가 넘쳤다. 배구 매력에 빠져 연산배구클럽과 연(聯)을 맺은 그들, 짝짝 손을 뻗고 몸을 날려 공을 치고받으며 외친다. “리시브! 토스! 스파이크!”



배구로 만나 가족처럼  
끈끈하고 친근한  
관계로 발전

“원래 매주 화, 목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연산초등학교 체육관을 대관해서 연습을 했어요. 남, 여 혼성으로 레슨과 연습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인원이 꽤 돼서 공간이 커야 하거든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2개월 정도 휴식기를 가졌다가 지난 4월부터 대관비가 4배나 더 비싼 김해 연습장을 빌렸죠. 여긴 공간이 비좁아 매주 화, 토요일 남, 여로 나눠 연습하고 있어요. 손소독제를 비치해 놓고 발열 체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때 배구선수 경험이 있는 이광호 감독의 현업은 엔지니어다. 자원봉사로 연산배구클럽을 맡은 지 1년째다. 회원들 직업도 다양하다. 가정주부를 비롯해 대학생, 회사원, 교직원 등 사회생활을 하며 배구동호회 활동으로 무료한 삶에 활력을 찾는 이들이다. 연산배구클럽의 부회장 유선화 선수는 연산배구클럽이 자기 삶의 98%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공격수, 수비수  
포지션 배치 완벽,  
실력 좋은 선수들 포진

“아무래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컸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배구라는 종목 자체가 개인 역량보다는 팀플레이가 더 중요해서 오랜 시간 연습을 거쳐 서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여러 대회를 거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온 거죠.”

선수들 포지션 배치도 잘 돼 있고 부산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선수가 연산배구클럽에 소속돼 있는 것도 2019년 슈퍼컵 우승팀으로 이끈 요인이 아닐까? 이 감독, 그가 최고라고 손꼽은 선수는 초등학교 때 선수생활을 한 올해 25세 반예림 씨. 반예림 선수의 언니인 박예진 선수도 함께 연산배구클럽에서 활동 중이다. 2007년 연산배구클럽 창단 때부터 함께 해온 최옥금 선수는 연산배구클럽을 탄탄하게 지키는 버팀목 같은 존재다. 올해 29세 유선화 부회장은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분위기 메이커로 유연성이 남다르고 공격수답게 스피드도 좋으며 이 감독의 회원 자량이 끊이지 않았다.



배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연산배구클럽 회원들

몇몇 회원들에게 ‘배구는 내게 00다!’라는 질문을 던졌다. 한 회원은 ‘배구는 심장이다’라고 답했다. 공이 언제 내게로 올지 몰라

긴장되고 승부가 나는 순간이 짜릿해서 ‘배구’를 할 때마다 쿵쿵대는 심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또 다른 회원은 배구는 ‘퍼즐’이라고 말했다. 팀원 중에 한 사람만 빠져도 그 빈자리가 아쉽고 다 같이 맞춰나가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 하지만 퍼즐을 완성하면 그만한 성취감도 없다고 덧붙였다. 연산배구클럽이 품은 단기적, 장기적 목표는 무엇일까? 단기 목표가 남녀전국대회에서 동반 우승하는 것이라면 장기 목표는 그야말로 멀리 내다본 계획들이다.

2100년까지 연산배구클럽을 유지하는 것, 연산배구클럽 구단 버스를 구매하는 것 그리고 연산배구클럽 단독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 또한 연산배구클럽 후원 기업을 유치하는 것 등이다. 마지막으로 이 감독이 들려준 얘기가 귓전에 맴돌았다. 타 지역에 비해 여성 회원이 참가할 수 있는 배구 대회가 너무 적은 게 현실, 부산 지역에서 2개 대회 정도뿐이라고 했다. 여성 회원들이 참가할 수 있는 배구 대회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소망, 곧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스포츠 전국 투어



# “으라차차~” 씨름의 희열, 창원을 가다!



경남 창원시는 1970년대 김성률, 1980~1990년대 이승삼-이만기-강호동으로 이어지는 마산 씨름의 맥을 되살린다. 500억 원을 들여 마산구 서원곡 일대를 ‘씨름 성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창원시 마산 지역은 천하장사, 일반장사 등을 대거 배출한 씨름의 성지로 불렸다. 씨름의 성지인 마산 부흥을 꾀하고 씨름을 지역 대표 문화자산으로 육성해 관광자원화를 추진키로 계획한 창원시, 한동안 씨름은 침체 국면을 맞았지만 최근 레트로(Retro) 열풍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스포츠로 다시 자리매김을 하면서 비롯됐다.

## ❓ 씨름의 고장, 마산의 화려한 면면의 역사

씨름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기예의 하나로 두 사람이 살바나 띠 또는 바지의 허리춤을 잡고 힘과 기술을 겨루어 상대를 먼저 땅에 넘어뜨리는 스포츠로 승부를 결정하는 민속놀이이자 운동경기다. 일제강점기에도 마산 지역에서 활발히 행해 온 씨름, 광복 직후 결성된 마산씨름협회는 전마산 씨름대회 등 숱한 대회를 개최했으며 마산 씨름계에서는 전팔용·박명규·배용찬 등이 약 10년간 장사로 통했다. 마산상고 씨름부는 창단부터 1980년대 전반까지 김성률·이승삼·이만기·강호동 등 수많은 우수 선수들을 배출했다. 1960년대 후반 마산 씨름계가 침체에 빠지려 할 때 김성률 선수가 출현해 전국 씨름계를 10여 년간 평정하면서 마산을 다시 ‘씨름의 도시’로 소환한다. 그는 1967년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우승한 다음 약 10년간 모래판의 전설을 만들어냈다.



## ❓ 마산의 명성을 이어 씨름의 성지, 창원으로!

이만기와 강호동, 두 명의 ‘천하장사’를 배출한 경남 창원시는 500억 원을 들여 마산시 서원곡 일대를 ‘씨름 성지’로 조성한다. 창원시는 지난 2월 18일, ‘씨름의 성지, 창원’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사업비 450억 원을 들여 씨름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리의 고유 스포츠인 씨름 기반을 조성하고 저변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씨름의 고장 마산’의 명성을 ‘씨름의 성지 창원’으로 이어가겠다는 것. 창원시는 최근 ‘씨름의 성지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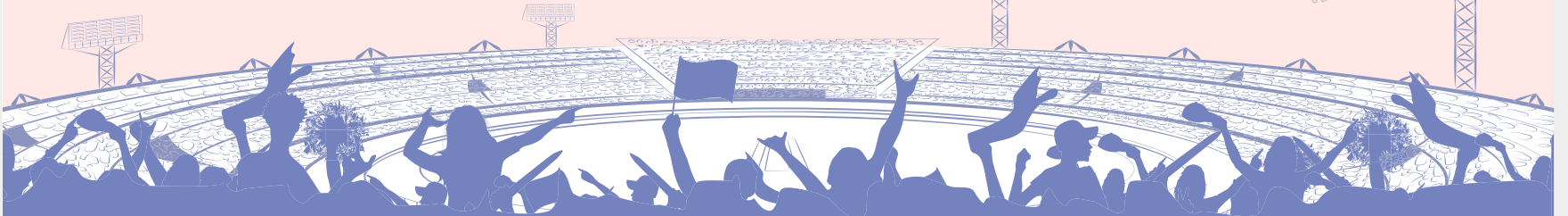
원’ 조성을 위해 1) 씨름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2) 씨름 진흥 기반 조성 3) 씨름 저변 확대 4) 씨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4개 전략을 발표했다. 마산 씨름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서원곡씨름장은 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4개동, 연면적 1,743m<sup>2</sup>의 규모로 리빌딩해 전국 최고의 씨름 전지훈련 메카로 조성한다. 또 전국 최초로 100억 원을 투입해 씨름 역사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씨름의 역사, 역대 천하장사 일대기, 유명선수 흉상, 천하장사의 애장품 등을 전시하고 관광객을 위한 씨름 체험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창원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씨름 전용경기장도 건립해 관광 자원화하고, 고유민속·문화공연 등 전통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씨름 전지훈련팀 체련 단련 코스를 10억 원으로 개발해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이만기, 강호동 등 천하장사가 훈련한 무학산 등산로를 관광자원화한다. 창원시는 씨름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씨름진흥조례를 제정하고 씨름발전협의회를 설치했다. 특히 지역 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클럽 육성, 유소년 선수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씨름왕대회 개최도 구상 중이다. 이와 더불어 서원곡씨름장 주변 씨름 특화거리 조성, 서원곡씨름장 체험관광 상품화, 씨름 스토브리그 개최를 통한 전지훈련팀 유치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창원지역 씨름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잘 살려 씨름 본고장의 명성을 회복하고 창원이 씨름의 성지가 돼 경제 부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달의 이슈 - 프로 스포츠의 개막



# 코로나19 사태 뚫고 조심스레 프로 스포츠 개막



설렘만큼 걱정도 지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개최가 미뤄졌던 2020프로축구 K리그가 지난 5월 8일(금) 본격적으로 개최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4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2020 시즌 개막일과 경기 수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 2월 29일 개최 예정이었던 K리그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지 두 달여 만이다. 프로야구도 예정보다 38일 늦은 지난 5월 5일(화) 개최했다. 무관중 개최전이 처음이다 보니 전에 볼 수 없는 진귀한 장면이 연출됐다.

### ISSUE 01

#### 프로축구 개막 이후 바뀌게 된 세 가지 스포츠 습관



줄곧 신중한 태도를 취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면서 실외체육시설에서의 행사나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이나 소규모 경기로 점진적으로 시행키로 결정하며 개최를 추진한다. 이로써 기억 없이 개최만 기다리며 애를 태우던 구단들과 팬 모두 한숨을 돌렸다. 물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올 시즌 K리그는 여러모로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다. 개최전 대진은 유지된다 해도 일정 자체가 축소된 만큼 세부적인 경기는 조정이 불가피하다. 또 개막 후에도 당분간은 무관중 경기로 치르고 추후 상황을 봐서 관중 입장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ISSUE 02

#### 유례없는 무관중, 프로야구의 개최 속 진풍경



전 세계가 지켜본 무관중 프로야구의 개최! 올해는 어린이날에 맞춰 개최전이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이렇게 관중 한 명 없는 즉, 무관중 경기가 치러졌다. 그만큼 진풍경이 속출했다. 텅 빈 관중석은 선수들을 응원하는 현수막으로 채워졌고 무관중을 의미하는 '무' 모양의 캐릭터들이 자리를 잡았다. 경기장 전광판도 눈길을 끌었다. 야구장에 가지 못한 팬들이 집에서 응원하는 영상이 소개됐다. 개최전 시구는 어땠을까. 한 어린이가 야구공 형태의 풍선 공 안에 들어가 비대면 시구를 선보였다. 경기 중에 감독 인터뷰를 하는 건 팬서비스 차원에서 새롭게 추가됐다. 관중석은 비었지만 취재 열기는 여느 개최전보다 뜨거웠다. 특히 전국 5개 경기장에 20개 외신들이 몰려 한국 프로야구 개최에 유례없는 관심을 보였다. 무관중 경기로 열리는 한국 프로야구가 외신들의 관심을 받은 이유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를 비롯해 전 세계 프로야구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상태지만 한국 프로야구는 타이완에 이어 두 번째로 시즌을 시작했다.

### ISSUE 03

#### 코로나19 이전, 일상의 행복을 기다리며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코로나19 사태 속 개최를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다. 선수들과 구단 스태프, 미디어 종사자 등 경기마다 200~300명이 모이는 종목 특성상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을 두 차례나 발표했다. 지난 4월 21일 무관중으로 연습경기를 시작한 프로야구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선수들 간의 악수나 하이파이브, 경기 도중 침을 뱉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선수들은 하이파이브를 하는 대신 박수를 치거나 팔꿈치를 부딪치는 것으로 대신했다. 경기 전후 상대팀 선수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던 모습도 사라졌고, 심판과 판독 요원들은 마스크에 장갑을 끼고 비디오 판독을 실시했다. 코로나19가 앓아간 오랜 전 일상에 대한 그리움, 화창한 봄날 저녁 야구장을 물들이던 붉은 노을, 경기장에서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며 목이 터져라 응원하던 추억이 생생하다. 코로나19 사태로 뒤늦게 우리 곁에 찾아온 프로 축구와 야구, 관중석을 가득 메운 팬들을 기다리며 의미 있는 첫발을 뗐다는 평가를 받았다.

## 부산체육의 발자취



# 남과 북이 하나 된 평화의 축제,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 01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도시로

21세기를 맞아 일약 동북아시아의 중심을 넘어 세계적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부산에게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은 의미를 던져 주었다. 치열했던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과정에서부터 내재돼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을 불과 한 해 앞둔 2001년 전후에 잇따라 터져 나오므로써 대회 준비에 여념 없는 부산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은 아시아경기대회 총괄 기구인 OCA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간의 마찰이었다. 부산은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 아시아인을 넘어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킴과 동시에 평화의 제전으로서 대회의 의미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역사적 이벤트를 준비해 그 성사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였다.

### 03 아름다운 만남, 뜨거운 열전의 16일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한국이 거둔 최종 성적은 금메달 96개, 은메달 80개, 동메달 84개로 중국에 이은 종합순위 2위였다. 16년 전인 86아시아경기대회에서 거둔 금메달 93개, 은메달 55개, 동메달 76개를 앞서는 역대 최고의 성적이었다. 한국이 이처럼 일본과의 경쟁에서 완승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은 비인기 종목들에서 금메달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었다. 정구가 7개 전 종목을 석권하고 세팍타크로가 남자 서클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이변을 연출했다. 펜싱도 금메달 6개를 땀과 사격과 볼링, 요트, 레슬링, 체조 등도 금메달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 02 통일과 평화, 하나의 불이 되다

북한의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는 2002년 시드니올림픽대회 남북한 동시 입장 이후 2년 이상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남북 체육 교류의 물꼬를 다시 트는 결정적인 전기가 됐다. 그동안 남북 스포츠는 축구와 탁구 등 종목에서 단일팀을 이뤄 대회에 나선 적은 있었으나 300여 명이 넘는 북한 선수단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종합 스포츠대회에 참가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비단 체육 분야뿐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교류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음으로써 남북관계를 크게 진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국내외 언론들은 북한의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남북관계가 화합과 평화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 04 한계를 넘어 감동으로, 평등을 향한 도전

2002년 부산에서 개막한 제8회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는 ‘평등을 향한 힘찬 도전’이라는 대회이념을 바탕으로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장애인의 재활의지 고취 및 사회인식 개선, 장애인 스포츠 발전의 도약대 구축,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실현, 국제 친선과 우호 증진에 기여 등을 대회의 목표로 삼았다. 아·태장애인경기대회는 스포츠를 통해 인간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사회통합이라는 장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스포츠 뉴스



SPORTS  
NEWS

01

**부산광역시체육회  
2020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지난 5월 12일(화) 부산광역시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을 비롯해 각 회원종목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주요업무 현황 보고와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보고사항으로는 △20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결과 △부산광역시체육회 임원 선임현황에 관해 보고했다. 그리고 심의안건으로는 △부산광역시체육회 규약 일부 개정(안)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산광역시체육회 임원 선임(안)에 관해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체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며 앞으로도 체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총회가 마무리되었다.

SPORTS  
NEWS

02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교통공사 업무협약체결**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6월 11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부산교통공사와 상호발전 및 홍보·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과 부산교통공사 이종국 사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단체가 보유한 정보와 콘텐츠를 최대한 공유 및 활용해 단체홍보와 체육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호소통을 통해 더욱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체육발전사업 협조 및 지원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의 협조 및 지원 △양 단체의 이미지 및 홍보·마케팅협력 등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단체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부산체육발전 및 대중교통 이용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PORTS  
NEWS

03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코로나19 극복 희망캠페인 릴레이’ 동참**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이 지난 6월 11일 ‘코로나19 극복 희망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태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관계자 및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응원 문구를 적어 SNS 등에 게시하고 다른 참여자를 추천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추천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장인화 회장은 ‘#힘내라 부산, #힘내라 대한민국,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영웅입니다, #함께 극복하는 코로나19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 합니다’라는 응원 문구를 촬영해 언론사 및 SNS에 게재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장인화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그리고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지치고 힘들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다음 희망 캠페인 릴레이 참여자로 부산시설공단 추연길 이사장을 지목했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주|대원플러스건설  
DAEWON PLUS CONSTRUCTION CO., LTD.



|주|동원개발  
www.dongwonapt.co.kr



부산도시가스 | SK E&S

